

2021
수특

2021 EBS 수능특강 문학 1. 개념학습 7강 눈물 김현승 분석서술형문제

이 콘텐츠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
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,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▣ 지문 분석

더러는

옥토(沃土)에 떨어지는 《작은 생명》 이고저(소망의 어조)…….(기독교적 발상. 부활·재생의 소망)

(《 》: '눈물'의 은유 ①,②,③)

▶1연: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

《흙도 티도,

금가지 않은(온전하고 순결한 존재로서의 눈물 비유)

나의 전체》는 오직 이뿐!

▶2연: 절대적으로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

《더욱 값진 것으로

드리라('드리라'의 높임법 사용으로 경건한 분위기 조성) 하올 제,

나의 가장 나아종('나아종'- 시적 허용. 화자의 태도 효과적으로 나타냄) 지니인 것》도 오직 이뿐!

▶3~4연: 가장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눈물

아름다운 나무의 꽃(≡웃음/↔눈물,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)이 시뭍을 보시고

열매(≡꽃/↔웃음, 영구적이고 본질적 삶의 결실)를 맺게 하신 당신은

나의 웃음을 만드신 우에

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.('웃음'↔'눈물': 눈물을 신이 주신 은총으로 인식.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. 순결하고 순수한 삶 추구)

▶5~6연: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눈물

- 김현승, 「눈물」

▣ 핵심 정리

- 갈래 : 자유시, 서정시
- 성격 : 종교적, 철학적, 상징적
- 심상 : 묘사, 비유, 상징
- 어조 : 경건한 경어체와 소망
- 제재 : 눈물
- 주제
 - *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의 기원(순결한 삶의 추구)
 - * 눈물의 순수함에 대한 인식과 슬픔의 극복
 - * 심화된 생명의 순결성

학습자료의 모든 것, EBS 분석·변형문제

나무아카데미

www.namuacademy.com

- * 슬픔의 종교적 승화
- * 눈물의 순수성과 고귀성 (순결한 삶의 추구)

■ 특징

- * 경어체로 경건한 신앙심을 표현
- *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

■ 구성

- * 제1연 : 작지만 순수한 생명의 소망
- * 제2연 : 나의 전체로서의 이것(눈물)
- * 제3~4연 : 가장 값진 이것(눈물)
- * 제5연 : 절대자의 존재와 그 섭리

▣ 이해와 감상

김현승은 사랑하던 어린 아들을 잃고서 그 지극한 슬픔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견디어 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한다. 시인은 슬픔과 눈물을 피하기보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. 그는 눈물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이라고 여김으로써 그 고통을 넘어서는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.

절대자 앞에서 경건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닌 욕망과 기쁨 따위가 결국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는 일이다. 그러면 이들을 모두 버리고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?

김현승은 슬픔, 곧 눈물이라고 답한다.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맛보는 순간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여진다는 것이다. 눈물은 첫째 연이 노래하듯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며, 가장 진실한 순간에 있어서의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이다. 우리가 신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확실한 것도 눈물이다.

이와 같은 생각의 흐름을 통해 김현승은 눈물이 피해야 할 것이기보다는 신이 사람에게 내려 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보는 경지에 도달한다. 그것은 마치 나무의 꽃이 시든 뒤에 열매가 열리도록 한 신의 섭리와도 같다. 웃음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삶의 꽃이라면 슬픔과 눈물은 그 열매에 해당된다고 그는 노래한다. 그리하여 그는 역설적으로 눈물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신의 은총이라고 여김으로써 지극한 슬픔을 이겨내는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.